

총론-오르도스 청동기문화의 이해를 위하여

이강승(충남대 고고학과)

내몽고 지역을 비롯한 중국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은 한국의 선사·고대 문화와 관련이 깊어 고대 역사가들의 주목을 받아온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발달한 신석기시대 홍산문화는 한반도 신석기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청동기시대에는 비파형동검문화라는 독자적인 청동기문화가 만주와 한반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전하여 우리나라 청동기문화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상 고조선·부여의 정치체들이 출현하였다. 철기시대에 들어서면 고조선과 부여의 외곽에서 고구려가 성장하여 요동 전역과 길림성을 무대로 활동하였고,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는 발해가 고구려 영역을 기본으로 위쪽으로 흑룡강성 지역까지 활동하여, 우리 민족의 형성과 발전, 성쇠의 무대가 되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물질문화는 한국의 선사·고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충분했던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이념과 체제의 벽에 가로막혀 중국 북방지역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중국 북방지역에서 방대한 고고학 발굴 성과와 연구들이 양산되었으나, 이들 발굴 성과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자료의 집성, 연구성과에 대한 소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소식은 일본학계의 연구성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고, 불가피하게 중국 북방 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발굴기관에서 보고한 소략한 보고 내용을 별다른 여과 없이 무비판적으로 인용하였다. 따라서 우리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이 지역의 고고학적 사정에 대해서는 일본학계의 연구성과나 중국에서 발행되는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자연 이들의 연구시각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중국학계가 변두리 지역의 고고학 사실에 대해서는 중화적인 관점에서 중국고고학의 지방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였으므로 서술과 결론은 항상 중화중심적인 사관을 벗어날 수 없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매우 거칠어서 우리 고대사 연구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북방 지역 고고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고고학과 고대사 연구자들이 뜻을 함께 한 것이 바로 북방문화연구회이다. 우리 모임은 1994년 1월 17일에 결성하여, 13년째 월례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15명의 연구자들이 모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월 1회의 정기 세미나와 함께 전국의 발굴유적을 수시로 답사하고 현장에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 유적과 유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여름에는 북방지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자료집을 만들어 연차적으로 꾸준한 현지답사를 실시해 왔다.

우리 모임에서는 북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고고학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이 지역 고고학 자료에 대한 중장기 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초 계획은 내몽고 및 중국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고고학 자료들을 독회하고 그 성과를 정리하려는 것이었다. 1994년~1996년까지 3년여의 공동학습을 통하여 내몽고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수록한 발굴보고서와 연구성과에 대한 독회를 마쳤으며,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요령성(遼寧省) 지역 고고학 성과에 대한 독회를 마쳤다. 첫 대상지역이었던 내몽고 지역의 청동기-철기시대 문화를 정리하기 위하여 1996년 여름부터는 주요 텍스트인 『鄂爾多斯式青銅器』를 포함한 주요 논문들을 읽고 정리하였다. 이후 학습에 대한 결과로 『鄂爾多斯式青銅器』를 포함한 주요 논문과 보고서들을 일정한 양식으로 정리하여 『內蒙古考古資料集』을 자체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1999년 여름에는 내몽고 오르도스 지역을 현지 답사하여 관련 유적을 조사하였다.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은 그간 내몽고 지역의 고고학자료에 대한 독회와 아울러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내몽고 오르도스 청동기문화에 대한 개설서를 출간하기 위한 중간 정리작업의 성격이 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연구사 정리와 유적편, 유물편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오르도스 청동기 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정리한 첫 번째 발표에서는 그간 조사된 오르도스 청동기 문화와 관련된 유적에 대한 발굴 약사와 기원, 주인공, 편년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충실히

정리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오르도스 청동기문화 유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르도스 고원지역과 음산 남록 및 하투평원지역, 양성현과 그 주변 지역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오르도스 청동기시대의 묘제와 부장 양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오르도스 청동기시대 유물은 토기와 청동기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집약하여 마지막으로 오르도스 청동기문화의 편년과 지역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 고고학연구의 초창기 시절, 중국 동북지방의 문화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오르도스 청동기와 한반도 청동기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의 연구결과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자 한반도와 오르도스지역은 거리와 시기가 한반도와 너무 떨어져 있어 단선적으로 연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편, 중간 완충지역의 문화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르도스 청동기 문화에 대한 이번의 연구작업을 통하여 묘제와 토기상으로는 오르도스 고원의 지역성이 나타나지만, 청동기로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르도스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찾기는 힘들며, 오히려 중국 북방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르도스 청동기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동기뿐 아니라 토기와 묘제 등 포괄적인 물질자료를 통하여 광역의 중국 북방 청동기 문화 속에서 세부 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물론 오르도스 지역의 청동기가 질과 양 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지역의 청동기가 외부로 확산·발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묘제와 토기가 청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성이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내몽고 지역을 벗어나 요령성이나 길림성의 청동기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좋은 시사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발표가 우리 고고학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대상과 시야 확대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면서 젊은 고고학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